

SK케미칼, 건축용 PET패널 개발

PET 심재 <SKY BOARD> 선보여 ... 2004년 50만m³ 생산체제 목표

SK케미칼이 건축용 PET 심재 <SKY BOARD(스카이보드)>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.

SK케미칼(대표 홍지호)은 11월26일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샌드위치 패널용 <SKY BOARD>를 개발하고 한해 20만평방미터 수준의 양산설비를 가동한 데 이어 2004년 상반기 중 50만평방미터 생산체제를 갖추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중전 건축용 심재는 글라스울이나 스티로폼 등을 사용해 호흡기에 영향을 주거나 화재에 약한 단점이 있었으나 <SKY BOARD>는 무공해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소재를 이용해 가볍고 무기질 난연제를 고착 처리해 만들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유독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.

SK케미칼은 <SKY BOARD>로 1조원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심재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.

SK케미칼 이형욱 팀장은 “국내 유수의 대형 패널 제조기업과 협력해 시장 조기확산에 매진하고 있으며, 출시 초기의 반응이 너무 좋아 당초 목표인 시장점유율 30%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밝혔다.

샌드위치 패널은 주로 공장건물, 대형 할인매장 및 다용도 건물의 용도로 사용됐으나 최근 사무실 및 주거 용도로까지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27>